

광고 카피라이팅의 트렌드

AI 시대를 건너가는 카피라이터의 자세

글 | 유병욱 TBWA KOREA ECD byoungook.yoo@tbwa.com

‘광고를 잘하려거든 딱 반 발만 앞서가라.’

광고계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전해 내려온 문장이 있다. 수많은 선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문장. 광고를 막 시작하던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던 문장.

이 문장은 내게 닿은 뒤로 내가 광고를 만드는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시대를 풍미하는 장르를 ‘트렌드’라 부른다면, 그 트렌드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을 때 비로소 ‘클래식’이 된다. 말하자면 저 문장은 클래식 of 반열에 오를 만한데, 이는 내 세대에 그치지 않고 나의 후배들에게도 꾸준히 전해졌기 때문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감하는 것은 클래식

-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콘텐츠 - 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함께 일하는 선배의 수보다 후배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지금, 나는 오래전 저 문장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는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팩트에서도 우주를 발견하는 카피라이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문장 속에는 AI 시대에 직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하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생존에 힌트가 되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반 발만 앞서가라.’

이 말의 핵심은 한 발이 아니라 ‘반 발’에 있다. 새로운 기법, 언어 유희, 비주얼 쇼크. 가지고 있는 무기를 총동원해서 현란하게 싸우고 싶은 것이 크리에이터들의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 나도 아직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 오히려 욕심을 살짝 덜어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생각에 둘러싸여 사는지를 그 어떤 크리에이터 집단들보다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광고를 만드는 이들이 가져야 할 핵심 능력이라는 뜻이다.

그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맛있는 고기 위에 통후추를 한 두 알만 얹어서 먹듯 기술이 살짝 들어가야 좋은 광고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이 ‘딱 반 발만 앞서가라’ 문장의 핵심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만 자랑하다 끝나기 쉬운 일이 우리 일이라는 말. 그러니 열심히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궁금해하고,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늘 안테나를 세워두고 지켜보라는 말이었다.

바로 그 관점에서 2025년 오늘의 광고를 바라본다. 오늘 나와 나의 동료들이 만들어내는 광고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담겨있을까.

위로와 공감. 인사이트와 유머.

2025년의 광고들 속에는 위로와 위안의 시선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반증 아닐까. 한편, 온에어된 거의 모든 한국 광고들이 모여있는 사이트(TVCF.co.kr)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광고들에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카피, 인사이트가 뛰어난 카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영상과 메시지를 찾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에는 강력한 인사이트들이 숨어있음을 확인한다.

잡코리아/알바몬



우리 어른이들, 오늘도 잘하고 있나요?
일하는 모든 이를.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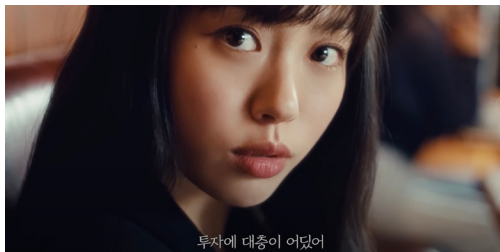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서로를 알지 못하는 남인데 대신 손을 뻗는다.
모르는 아이에게도 웃어 보이고
발걸음을 기꺼이 되돌린다. (중략)

그 마음 그대로를 금융에 담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키움증권



20대의 시드머니란?
열심히 알바뛰어 번 돈.
사고 싶은 거 참고 모든 돈
그런 돈인데 대충할거야?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

아이클리어



하루 손이 일하는 시간 8시간.
입이 일하는 시간 3시간.
그럼 눈은? 17시간.
눈건강 더 늦기 전에

에이스침대



자용 잘자용 법칙.
침대 = 과학
표면잠력.
침대 = 과학

유머를 활용한 광고도 여전히 사랑받는 중이다. 과학 유튜버 '괘도'를 모델로 쓴 에이스 침대의 카피를 보자. 과학용어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살짝 비튼 '자용 잘자용 법칙'과 표면장력을 한 글자만 바꾼 '표면잠력'. 유머야 말로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원문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한 두 글자만 바꿔 피식 웃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침대의 본질인 잠에 닿아 있다. 실은 엄청난 직업적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다. AI가 아무리 진화해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일이다.

‘반 발만 앞서가라’에 담긴 자존의 가능성

필자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책을 쓰고 있다. 직업이 두 개인 셈인데, 그래서 북토크 같은 행사에서 광고계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북토크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늘 질문을 받는데, 요즘 독자분들은 압도적으로 AI에 관해 묻는다. AI가 놀라운 속도로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지금, 작가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도 AI가 대체하게 되는 건지. 당혹스러운 질문을 꾸준히 받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는 중인데, 나름대로 정리한 모범답안을 이 지면을 빌어 소개해본다.

“예전엔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면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아직 멀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AI가 해내는 일들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다만 여전히 인간의 감정선 위에 인류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현대 과학이 아직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AI에게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구성원들의 미묘한 감정선을 이해하고, 여기에 약간의 단절, 새로운 터치를 더할 수 있는 건 AI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아주 숙련된 카피라이터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 이죠.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AI에게 자리를 뺏길 겁니다. 바꿔 말하면, AI가 잘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인간의 감정선을 다루는 일에서 나는 우리 일의 희망을 본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반 발 앞선 지점에 점을 찍을 수 있는 능력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본다. AI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일들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한 일이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읽고 답을 내놓는 것이 AI의 일일 테니까. 현대 과학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선을 이해하고, 기존의 패턴을 살짝 깨는 일은 AI가 해낼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것이다. 패턴 밖의 일이니까.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난해하지 않고, 과거를 반복하여 지루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 대중들이 익숙한 지점의 살짝 윗부분에 점을 찍을 수 있는 힘. 일종의 아젠다 세팅 능력에 광고인의 미래가 있다. 멋지지 않은가. 우리의 자존감은 ‘반 발만 앞서가라’에 있다.



필자 | 유병욱

순간적인 재치보다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이 광고의 진짜 매력이라 생각하는 카피라이터. 현재 TBWA KOREA에서 Executive CD로 일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TV부문과 디지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은 책으로는 「생각의 기쁨」, 「평소의 발견」, 「없던 오늘」, 「인생의 해상도」가 있다.